엄마가 보일 때까지

(요9:35~41)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엄마가 보일 때까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자라는 과정 중에, 또 지금까지도 때만 되면 이 얘기를 반복하셔서 수십 번은 족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지만 제 기억에는 없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한번 해봅니다.
저희 집이 지금의 연남동 자리에 있었고 학교는 서대문에 있는 미동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입학했을 초기에 어머니께서 늘 저를 데리고 학교에 가셨다가 저를 데리고 집에 오시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연남동에서 동교동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야 서대문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을 혼자 그렇게 보내실 수 없어서 한동안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이 있으셔서 등교시간에 저랑 같이 못 가고, 같은 학교 다니는 형님

들에게 딸려서 저를 보내시면서 ‘엄마가 꼭 갈 테니까 먼저 가서 공부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서 아들을 데려오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교문에 들어섰는데,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1학년 교실이 운동장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반대방향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저쪽 운동장 끝의 교실 앞에 있는 엄마들이 마구 손짓을 하며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걸 본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정신없이 한달음에 교실로 갔는데, 모든 엄마들이 교실 문을 비켜주면서 창문 안으로 들여다보라고 해서 봤더니, 당신의 막내아들이 선생님은 지금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시고 80명의 어린이들이 앞을 향해 주목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혼자서 걸상을 기마자세로 거꾸로 걸터앉아서 가방도 등에 맨 채 그대로 선생님을 등지고 창밖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돌아앉아서 가방을 내려놓고 책을 꺼내 수업을 듣더라는 얘기를 참으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보일 때까지는 수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수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수업을 받을 마음도 없고, 선생님이 그렇게 달래고 달래도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등을 돌리고 엄마가 보이기 전까지는 수업을 듣지 않고, 그렇게 거꾸로 앉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적인 틀로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심판을 하러 왔다’
아니, 딴 데서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니, 그렇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에게 심판이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고, 본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지금 맹인이 돼서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보게 될 것이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맹인이 되면서 심판이 확정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얘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찾아 찾아갔더니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야기 속에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그러더냐?' '아니, 먹으라고 하셨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빼놓고, 이걸 먹게 되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마귀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할 줄 아심이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생각과 사고와 판단기능의 작용이 아니라, 눈이 밝아진 결과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이게 무슨 얘길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망에 빠졌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보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맹인이었나요? 시력이 없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눈이 밝아진 거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는 눈이 안 밝았고 시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는 시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시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력은 지금 마음의 시력을 말합니다.
육체의 시력을 말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처음에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옷 벗은 것이 창피해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마음의 시력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이 보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마음의 시력은 있어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가능했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도 마음이 본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구태여 선악과 이후에 할까요?

선악과 이전에는 하나님만 마음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네 줄기로 뻗어나가면서 강가에 보석이 가득했지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보았어요.
아름다운 에덴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만 보느라고 못 보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것과 나쁘게 여겨지고 싫게 여겨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은 갖고 싶어 하고, 마음에 싫게 여겨지는 것들은 거부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마음으로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어차피 눈으로 찾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을 마음으로 창조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이유였다는 겁니다.
왜 인간을 마음으로 지으셨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보게끔 하려고 마음이라는 형태로 인간을 지으셨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산을 보십니다, 나는 산을 향해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은 산과 들과 나무를 향해 있지만, 그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눈은 나무를 보고 있어도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산과 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얼굴에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아, 나무는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산을 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다는 반응을 나타내시면, '아, 산은 보기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며 살았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돈을 보시면서,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아,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자기가 직접 돈을 봅니다, '아, 돈이 최고야!'
산을 보면서 '아, 저 산에다 집을 지으면 좋겠다!' 들을 보면서 '아, 저 들에다 공장을 지으면 좋겠다!' 자기가 좋고 싫음을 판단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여호와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수풀 뒤에 숨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난 일이 도저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산 수풀 뒤에 숨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상태를 주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왜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에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면 그게 인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격이라는 게 왜 마음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보기 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될 경우에는 마음은 맹인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맹인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것, 이게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자들입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봄으로 괴로워하면서, 그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수업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전용으로 목적삼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의미가 없어져서 수업을 받지 않는 어린이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한 상태이고 못 보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시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못 보고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 생활, 내 삶이 산 같이 세워지는 세월이 있어서 좋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마자 산 같이 세워진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맹인들이라서, 이들이 구원받게 되어 보게 될 자들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다시는 돈 벌기 위해 나가지 않겠다, 사업하지 않겠다, 장사하지 않겠다, 공부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수업을 거부하는 어린이처럼, 아무런 삶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 보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전용으로 만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함이 없이 곧바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 자리를 봅니다, 건강을 봅니다, 남편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며 남편을 봅니다, 자식을 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일을 보고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서 삽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거라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전용의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보면 못 보는 상태로 남아있어야지, 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마음으로 당기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끔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힘이 있어서 우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자꾸 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아, 저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건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꾸 보게 됩니다.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도 '가졌으면 좋겠다, 내년에 사업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잘되는 사업을 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잘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원죄의 반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기회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면서 내가 같이 죽었다고 고백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 마음의 시선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는.
엄마가 보일 때까지는 수업을 안 받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는 이 세상을 아예 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나를 인정해버리면서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귀에 어떤 일이 들려도, 안 보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나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 뛰어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상태에서 세상도 하나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려져서 기다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처럼, '이제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가 안 보이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세상에 대한 시선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시간 바깥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어떤 현상과 사고와 사건도 깰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 보면 내 옆의 김 부장님이 오실 때 김 부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굴에서 읽혀집니다.
김 부장에게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입을 움직이실 때 그 입을 보면서, 김 부장을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는 김 부장을 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을 따라 말합니다.
사업을 볼 때도 우리 눈은 사업을 향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업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반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보는 자가 된 것이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못 보는 사람, 십자가의 맹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동안에는 나의 삶을 시작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 나는 날마다 십자가 맹인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반응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고, 주님이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느끼신 그 반응이 얼굴에 나타날 때, 그 얼굴만 보시면서 말하고 행동하시면서 사셨던 것이에요.

십자가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는 이 세상의 삶을 보지도 살지도 않겠다고 결심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맹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시선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야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